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3. 12. 20.(목) 06:00 ~ 23:00
- 상담건수¹⁾: 700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방송 호평(3명)

-프로그램명 : 「40주년 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

-방송일시 : 2023. 12. 20.(수) 1TV (10:00-11:30)

40주년 기획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. 본인이 24살 때 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를 시청하던 중 패널로 출연했던 의사선생님 덕분에 갑상선 혹을 발견했고, 적절한 시기에 치료할 수 있었다. 그래서 해당 방송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.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잘 시청하고 있다.

○ 진행자 섭외 제언

-프로그램명 : 「KBS 뉴스광장」 ‘스포츠 브리핑’

-방송일시 : 2023. 12. 20.(수) 1TV (06:00-07:50)

‘스포츠 브리핑’ 코너를 앵커가 진행하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. 타 방송사의 정규 뉴스 프로그램들을 보면, 스포츠 코너는 스포츠 전문 진행자가 맡는다. 그렇기에 내용이 알차다. KBS는 뉴스에서 스포츠 비중이 낮는데, 앞으로는 스포츠 전문 진행자를 섭외하는 등 스포츠에도 조금 더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58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청원성사 : ‘홍김동전’ 폐지 반대 9건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1)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700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²⁾	계
362	30	-	-	308	700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325	264	10	-	-	101	700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136	564	-	700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581	1	34	84	700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편성 제언 ○ 「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속 방송 요청 ○ 월화드라마 「혼례대첩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방송 편성 요청 <p>【보 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KBS 뉴스광장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행자 섭외 제언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6시 내고향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 제언 ○ 「40주년 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 호평 <p>【연예·오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1박 2일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자 호평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6시 내고향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김 식당」 연락처 문의 45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고기&샐러드 무제한」 연락처 문의 37건 ○ 「KBS 뉴스 9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보도 불만」 18건 ○ 「개그 콘서트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방청」 문의 17건 ○ 「홍김동전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폐지 반대」 13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난시청」 문의 1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14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2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9건 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4건 ○ 「주차」 문의 2건 외 3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84건

2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편 성]	
편성 제언	<p>○ 「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TV (토) (21:40-22:25) - 해당 방송을 좋아하는데 편성 시간이 늦다. 방송을 기다리다보면 몸도 피곤하고, 잠이 드는 경우도 있다. 편성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후속 방송 요청	<p>○ 「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1. 11. 11. ~ 2014. 8. 1. 2TV 방송. (총 124부작) - 방영 당시 잘 시청했다.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재방송 편성 요청	<p>○ 월화드라마 「혼례대첩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TV (월-화) (21:45-22:55) - 해당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. 다가오는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이다.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휴일이 이어지는데, 시청자들이 그 기간 동안 몰아보기를 할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면 좋을 것 같다. 1회부터 현재 방송된 15회까지 연속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[보 도]	
진행자 섭외 제언	<p>○ 「KBS 뉴스광장」 ‘스포츠 브리핑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2. 20.(수) 1TV (06:00-07:50) - ‘스포츠 브리핑’ 코너를 앵커가 진행하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. 타 방송사의 정규 뉴스 프로그램들을 보면, 스포츠 코너는 스포츠 전문 진행자가 맡는다. 그렇기에 내용이 알차다. KBS는 뉴스에서 스포츠 비중이 낮는데, 앞으로는 스포츠 전문 진행자를 섭외하는 등 스포츠에도 조금 더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시사 · 교양]	
방송 제언	<p>○ 「6시 내고향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TV (월-금) (18:00-19:00) - 시청할 때마다 제작진들이 열심히 방송을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. 다만 농촌을 비롯한 시골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조금 더 다뤄졌으면 한다. 요즘은 먹고 즐기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. 시골 시청자들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방송 호평	<p>○ 「40주년 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 (3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12. 20.(수) 1TV (10:00-11:30) - 40주년 기획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. 본인이 24살 때 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를 시청하던 중 패널로 출연했던 의사선생님 덕분에 갑상선 혹을 발견했고, 적절한 시기에 치료할 수 있었다. 그래서 해당 방송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.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잘 시청하고 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[연예 · 오락]	
출연자 호평	<p>○ 「1박 2일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TV (일) (18:15-20:05) - KBS의 여러 프로그램 중 「1박 2일」을 가장 좋아한다. 특히 김종민 씨를 좋아하는데, 방송인처럼 보이지 않고 이웃처럼 친근감이 들고 순수해 보인다.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좋다. 시청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편안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